

“말 할 수 있을 때 말해야죠”

비겁바이러스 치료제 개구쟁이 노정렬

글 · 사진 윤승일 nagneymoon@hani.co.kr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않기란 가진 것을 버리는 일보다 힘들다. 서울대 출신. 행정고시 합격자.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두 가지를 가졌다. 그리고 버렸다. 모두가 부러워할 것을 버리고 그는 개그맨이 됐다. 이름 석 자 앞에 수식으로 붙을 수 있는 화려한 이력은 그에게 대중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보증수표와도 같았다. 인기? 가질 수 있었다. 서울대 신문학 전공.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동문이 차고 넘친다. 그러나 한 번도 청탁을 받았으면 받았지 해 본 적은 없다. 인기를 얻기 위해 웃음을 파는 개그맨이 되고 싶지 않은 탓이다. 대신에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재능으로 시스템화한 우리사회의 모순을 알리고 그 대안을 고민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를 하고 싶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은 온전하게 그의 몫이다. 돈과 인기를 안겨주는 공중파TV 보다는 분노와 대안을 나누는 거리 무대에서 때로는 1인 시위 현장에서 더 자주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그를 만났다.

공감을 위해 개그맨이 되다

“안녕하세요 개구쟁이가 되고 싶은 노정렬입니다” 노정렬(39)의 첫인사다. “열 개, 입구, 다툼 쟁...” 노정렬이 힘주어 스스로 자신의 이름 앞에 단 수식어 ‘개구쟁이’에 토를 달았다. 단호한 그의 말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자신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공무원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연수받는 동안 ‘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 씨가 사표를 쓴 날은 행정고시 합격 후 1년의 연수를 마치고 정식 임용되는 날이었다. “인사명령이 두 개가 붙더군요. 하나는 ‘면 시보’ 그리고 몇 줄 아래 ‘퇴...’ 1년의 연수 기간은 노 씨에게 공무원 사회가 어항과 같다는 것을 일러 준 기간이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노 씨가 말하는 사표를 쓴 이유는 간절해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낳는다. 정통관료 대신 개그맨의 길을 택한 뒤 노 씨가 걸어온 길은 사표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노 씨는 관료보다는 사람을 꿈꿨는지 모른다. 제도과 강제된 법에 복무하기보다는 양심과 철학과 역사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 그의 목표였을 것이다.

사표를 쓴 뒤 MBC 6기 개그맨 공채시험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오락부장, 대학에서의 연극반과 풍물패 활동,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주는 몰라도 사람이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믿



음은 유전자로서 노 씨에게 부여되었을 것이다.

응시했고 합격했다. 화려한 이력으로 다른 합격생보다 먼저 언론을 탔다. 사람들은, 세상은 노 씨의 선택에 수군거림을 보냈다. ‘이제 인기를 얻겠지. 그 다음엔 정치를 한다고 설칠 거야.’ 이러한 수군거림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개그맨 시험장에서 그가 선보인 것은 시사개그. 노 씨는 전직 대통령의 목소리를 빌어 ‘시사개그’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개그맨이 되었다.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시험 때는 했는데 막상 공중파에서는 안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의 얼굴에서 잠깐 안타까움이 스친다.

길은 다른 곳에서 열리는 듯했다. 라디오에서 ‘쿨’이 왔다. 96년 여름이었다. 황인용의 FM모닝쇼에서 시사칼럼을 맡았다. 1주일에 한 번이었던 방송횟수는 두 번으로 늘고 세 번으로 늘었다. 대중의 반응도 우호적이었

다. 노정렬 씨의 ‘시사개그’는 먹히는 듯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어느 날 담당PD가 노 씨를 불렀다 ‘그만 하자’는 PD의 말에 토를 달 수도 없었다. “누군가가 그만 시키라고 했죠.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방송횟수를 늘려가던 PD가 갑자기 그만두자고 통보한 이유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불편한 시사개그는 커뮤니케이터 노정렬의 의무

국어사전은 시사를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으로 풀이한다. 사건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사건이 담고 있는 많은 사실을 따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만족하게 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시사라는 두 글자가 붙을만한 사건의 배경에는 권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동안 우리의 정치 개그는 공익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인 개인비판이나 양비론적 자세를 취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웃음을 위해 개그가 정치적 비관론이나 무관심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념을 지닌 젊은 노정렬은 언제나 실명을 거론했고 잘잘못을 따졌다. 정치현실을 웃음을 파는 소재로 사용하기보다는 웃음을 정치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노정렬의 시사개그는 누군가는 불편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켜진 시사개그맨 노정렬의 첫 걸음은 『말하면 뭐해 속만 상하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였다. “저는 아직 햇병아리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말없이 지나가는 단역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배워야 할 처지죠. 그러나 30대 중후반이 되면 자신의 캐릭터를 확실히 갖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그 다양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 받고 싶습니다.” 책을 펴내고 나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 씨가 한 말이었다. 그 후 12년. 노 씨는 자신이 꿈꾸던 30대의 마지막 해에 서있다.

불혹의 문턱에 선 노 씨에게 물었다. 노정렬은 누구냐고. ‘개구쟁이를 꿈꾸는 노정렬’ ‘커뮤니케이터 노정렬’이 답으로 돌아왔다. “저라고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전 운동권이 아니라 대중연예인이예요. 10번이면 한 두 번은 고민을 해요. 무색무취의 웃음을 만들 수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죠.” 망설임과 흔들림까지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은 흔들리는 자신을 부여잡기 위해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 씨는 솔직하다. 자신의 부끄러움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솔직을 넘어 용기의 문제다. “개그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말장난으로 웃음을 파는 게 개그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시스템화한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선 알려야 하는데 개그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개그를 공감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는 노 씨의 용기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좌빨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전 진보와 보수, 우익과 좌익 중 어느 편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공익과 사익의 기준이 있을 뿐이죠.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취하는 행동은 욕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서도 제 개그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어요.”

노 씨의 시사개그는 욕먹는 편이 등장한다. “잘못에도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거죠. 그 잣대는 양심과 헌법, 그리고 역사입니다. 힘이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 씨는 공정이란 이름으로 강제되는 기계적인 중립을 반대한다. 노 씨에게 ‘불편부당’과 ‘양시양비’는 비겁한 행위일 뿐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싶다

2009년 노정렬 씨는 불혹의 문턱에 와 있다. 결혼도 했고 두 명의 자식을 얻었다. 생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스스로도 어떤 개그를 하면 공중파TV의 문이 열리고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며 인기를 얻으면 돈도 따라 온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앞에서 ‘대학생 등록금 인하’ 1인 시위를 벌이고 경찰에 둘러싸인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뭐 다 행히 CBS <뉴스야 놀자>를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주 불러주기도 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선 하나를 버려야 한다. 노 씨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버렸다. “그래도 공무원 월급만큼은 법니다.” 공무원 월급은 노 씨의 자존 기준이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청탁이 들어오면 거절



지난 5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는 노정렬 씨
사진제공 프레시안

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 때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씨의 눈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시스템화한 절대적 모순을 끌어안고 있고 그 모순은 구호로 난무하는 잘사는 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그 모순에 편승하거나 눈감을 수는 없다. 떳떳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자라나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노정렬 이름 석자만 검색창에 치면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봐도 괜찮을 그런 기록을 남겨야죠.” 노 씨는 스스로를 대중연예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기도 더 얻고 싶다. 여전히 이리저리한 이유로 끝내야 했던 공중파의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1997년 짧게 끝내야 했던 <폭소클럽2>의 코너에 대한

미련도 남는다. “한 1년 정도 했더라면 우리나라에도 시사개그라는 장르를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사개그를 고집하며 외길 13년을 걸었다. 서슬 퍼렇던 군사 독재기에도 김형곤 씨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 했었지만 그 맥은 이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열어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에서 시사개그라는 장르는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노 씨의 몫만은 아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가진 자들이 역할 해야

노 씨는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노 씨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는 정의와 진실이 옳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우리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개천에서 용 난다’ 신화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미 구조화 된 가난과 사회모순 속에서 자수성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빠트려놓고 너도 억울하면 공부하라는 식의 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우리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CEO나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진보와 개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개그맨 노정렬은 여전히 공중파를 희망한다. 더 많은 대중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웃음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겁바이러스를 치료할 항생제임을 믿기 때문이다.

글 윤승일 |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며 현재 <한겨레21>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